

1945년 이후 미군 지형도 연구

Researching US military topographic maps since 1945

○엄 윤 진**

Um Woon-Ji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llection status and meaning of topographic maps of the U.S. milita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ir significance in the collection process of the National Museum of Urban Architecture. The U.S. military topographic maps are important materials that show the transitional situation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the publication of maps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Construction in the 1960s. They are also significant as a source of geographical information for the period from 1945 to 1960, when they were primarily produced.

키워드 : A.M.S, 미군 지형도

Keywords : A.M.S(Army Map Service), US military topographic maps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진행 중이다. 건립준비과정에서 다양한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미군이 발간한 지도가 다수 수집되었다. 다만, 이러한 유형에 대한 건축분야에서의 의미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미군지도 중 지형도로 한정하여서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지도의 1차 의미는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2차 의미는 지도 제작과정에 참여한 주제, 시기, 목적을 통해서 지리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박선영(2018)은 한국근대지형도 소장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근대지형도를 활용하여 해안선, 하천의 복원 방안과 공주지역을 대상으로 한 행정구역, 지명 변화, 교통로 등에 대한 변화과정 추적을 진행하였다. 박선영(2021)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지형도 소장현황을 국립중앙박물관, 스탠포드대학 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지형도(제2차 지형도)의 특징을 연구한바 있다. 미군 지형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연구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수탁과제로 진행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수집 및 홍보방안 연구’의 결과 중 일부를 보완 발전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주요기관에 소장된 미군지도 소장처, 지역, 수량 등을 파악하였다. 국내 전국박물관소장품 홈페이지에 미군지도, 지형도, 미군지도 시리즈명 등을 검색어로 파악하였다. 검색결과는 다시 미군 발간여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국내 주요 소장처는 국립민속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등 지역 소재박물관에 소장된 지도들이 일부 확인되었다. 국외 주요 소장처는 호주 국립도서관, 호주국립대 도서관, 텍사스대 도서관, 프린스턴대 도서관 등을 확인하였다.

1.3 미군지형도

본 연구에서 미군 지형도는 미육군에서 발간한 지도 중 지형을 표현한 것으로 시대는 1940~1960년대로 한정하였다. 지형도는 여러 주제도 제작을 위한 기본이 되는 지도로 일반도, 기본도로도 불린다. 미군지형도의 제작은 미육군공병대 극동지도제작부서(미 극동측지부)에서 이루어졌다. 지형도 외에도 비행항로지도(Operational Navigation Chart(ONC)) 등이 별도로 존재한다.

미군에서 발간된 지도는 A.M.S(Army Map Service)로 표기되며 ‘축척’ 및 ‘지역’에 따라서 발간시리즈가 별도로 부여된다. 예를 들어 A.M.S. L551시리즈에서 A.M.S는 제작 주체는 미국 육군지도장을 의미하고, L5는 축척 1:250,000만을 두 번째 자리 수는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5는 한국을 뜻하며 4는 만주지역, 마지막 1은 첫 번째 발간된 것을 뜻한다.

일련의 시리즈가 발간되면 인덱스 맵(INDEX MAP)을 통해서 위치, 도엽명 등을 제공한다. 이 자료를 통해서 발간 당시의 전체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반적인 작업이 진행된 경우에만 발간되고, 수시로 변화하는 자료들은 인덱스 맵에는 반영되지 않고, 개별 지도의 판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2. 1945년 이후 미군 지형도

2.1 미군 지형도 현황

현재 확인가능한 미군지형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미군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지도 정보 목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 전체 모습을 유추하였다.

표1. 미군 지형도 현황

시리즈	축척	제작시기	소장처	
			국내	국외
L302	1:1,000,000	1952		호주국립대 도서관
L351	1:700,000	1964		UCLA도서관
L451	1:500,000	1951		호주국립대 도서관
L551	1:250,000	1944	국립민속 박물관, 부평역사박물관	텍사스대
L552	1:250,000	1950		텍사스대
L651	1:100,000	1958~		호주국립 도서관
L751	1:50,000	1945~1961, 1966	부평역사박물관	한국전쟁 웹사이트, 호주국립대 도서관, 버클리대
L851	1:25,000	1950		호주국립 도서관, 미국회도서관
L852	1:25,000	1950년대 중반	부평박물관, 서울역사 박물관	호주국립 도서관
L951	1:10,000 1:12,500 1:20,000	1945		호주국립 도서관
L952	1:10,000 1:12,500	미상 (1950년대 이후 추정)		호주국립 도서관, 프린스턴대 도서관

확인되는 가장 작은 소축척지도는 L302시리즈로 축척은 1:1,000,000이며 도로지도(Road map)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한국 전역의 지형과 도로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엽명은 JAPAN ROAD MAP이고 sheet번호는 4번으로 일본지역의 한 부분으로 제작되었다. L351은 1964년 육군측지부대에서 제작하였으며 축척은 1:700,000이며 도엽명은 Southern Korea 남한, Northern Korea 북한이며 별칭은 대한 도로망도이다. L451의 축척은 1:500,000이며, 도엽명은 경성(서울)은 2번째 판본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SHEET는 8이다.

L551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19장이 확인되다. 도엽명은 목포, 대흑산도, 대구, 광주, 영덕, 대전, 서산, 어청도, 울릉도, 삼척, 용진, 백령도, 남천섬, 장산곶, 원산, 덕천, 안주, 신의주, 용암포로 일부 도시 및 해안 지역의 자료이다. 부산에 기증자료로 시리즈 전체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축척은 1:250,000으로 지형 및 도로, 철도 등에 대한 정보확인이 가능하다. L552시리즈는 텍사스대 소장본 인덱스 맵에 따르면 1968년 제작되었고 전체 22장이 발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L651시리즈는 현재 호주국립도서관에서 11장이 확인된다. 지역은 주로 수도권 일대로 도엽명은 연안, 발안장, 서울, 개성, 시변리, 수원, 독도, 의정부, 철원, 여주, 원주이다. 도엽명은 시기에 따라서 동일한 지명을 바꾸어서 명시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하나 시변리, 연변 등과 같이 특정 지역 일대를 지칭하기도 한다.

L751시리즈는 축척이 1:50,000지도로 기본도로도 불리는 가장 보편적인 지도로 국내, 국외에서 다수가 확인된다. 한국전쟁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시기는 1945~1961년이다. 특정시기에 전체 지역을 1차적으로 제작하고, 이후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장 나중인 1961년에 제작된 지도는 도엽명은 옥동니(Oktong-Ni)로 북한 봉래호 주변에 대한 지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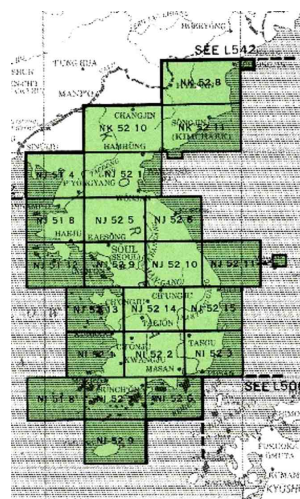


그림 1. L551 INDEX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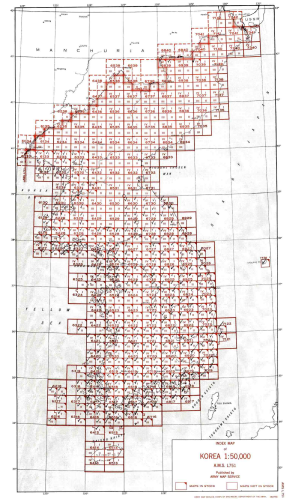


그림 2. L751 INDEXMAP

호주국립대 도서관 소장 자료 중 L751 남원, 1966년 자료는 특이하다. 이 자료는 미군지도와 한국군의 지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료 설명에 따르면, 육군본부 공병감의 지시하에 육군측지부대가 제작하였다. 또한, 미 극동측지부가 1957년 편집한 것을 1966년에 현장조사와 편집을 진행하였다. 지명은 한글과 영문이 병행으로 표기되었다. 정리하면, L751은 미군이 1945년 1:50,000지도로 최초로 제작하였고 1960년 중반에는 한국군은 기존의 시리즈를 유지하고 일부를 변형하여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L851시리즈는 1950년에 제작되었고 축척 1:25,000이며, 호주국립도서관에 일부 소장되어 있다. 지도 중 특별지도를 의미하는 special map이 표기된 것이 ‘인천 서쪽’, ‘영종도’ 2개가 확인된다. 지도는 미64공병측지대대(64th Engineer Base Topographic Battalion)에서 1936년, 1937년 일본 토지 조사로 진행된 1:25,000의 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명칭은 McCune-Raischauer System으로 한자명을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Sheet 6526 III SW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L751인천 지도를 세분화하여 도엽명을 표기하였다. 호주국립도서관 소장 현황 정보를 통해서 L851의 인덱스맵을 추정하여 보면 전체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전체지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국회도서관에는 문산 SE, 문산 NE, 마전니 SE, 마전니 NE, 포천 SW, 포천 NW, 연천 SW, 시변니 NE, 고양 SE, 연천 NW, 연천 SW, 문산니 NE, 군포장 SE, 군포장 SW 14장이 소장되어 있다. 이 중 문산SE지도를 살펴보면, 지도는 미 62공병측지대대(62d Engineer Base Topographic Battalion)에서 1954년 문산니 지도를 바탕으로 1953년 항공사진을 통해서 수정하였고, 1933년 일본 토지조사의 수평, 수직 축을 따랐다고 밝히고 있다. 군포장 SE는 special map으로 제작되었고, 1950년대 제작되었다.

L852 인천 도엽은 호주국립도서관, 부평역사박물관에 서울 도엽은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50년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당시 미군 기지가 표기되어 있어서 인천지역, 서울일대 연구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L951, L952시리즈는 도시를 대상으로 제작된 지도들로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1:10,000에서 1:20,000까지 다양한 축적으로 축적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L951는 호주국립도서관에 진남포, 해주, 함흥, 흥남, 겸미포, 경성 혹은 서울(케이조), 목포, 나진, 부산, 평양, 웅기, 원산, 여수 총 13장이 확인된다. 전체 지도는 도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축척은 1:12,500이나 나진, 웅기의 경우 1:20,000, 여수는 1:10,000으로 제작되었다. 인천은 별도 시리즈 표기가 없으며 1:12,500축척으로 1951년 제작되어 A.M.S 1951로만 표기되었다.

프린스턴대학 도서관에 원산, 군산, 평양, 해주, 함흥, 청진, 부산, 나진, 목포, 마산, 흥남, 여수, 진해, 경성 혹은 서울(케이조), 웅기, 인천, 겸미포, 진남포 총 18장이 확인된다. 호주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와 일치하며 청진, 마산, 군산, 진해, 인천, 경성 혹은 서울(케이조) 1951년 자료 6장이 추가로 확인된다.

L952는 호주국립도서관에 인천, 서울서측, 나남, 북청 총 4장이 확인된다. 나남, 북청은 1:7,500축척으로 1952년 제작되었고, 발행처는 국방부 Defense Mapping Agency Topographic Center이다.

프린스턴대 도서관에서 경성서측, 경성북측, 경성남측, 춘천이 확인된다. 경성서측, 경성북측, 경성남측 지도에는 앞서 언급한 경성(L951)을 참조하여 제작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춘천지도 설명에는 L951을 참조하였다는 언급이 없어서 춘천과 관련한 최초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경성 혹은 서울(케이조) 1946년(L951)과 1951년(L952) 지도를 통해서 6.25전쟁 시기 서울의 피해상황을 추적하여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1951년 지도에는 기존에 건물이 있었으나 폐허가 된 지역은 별도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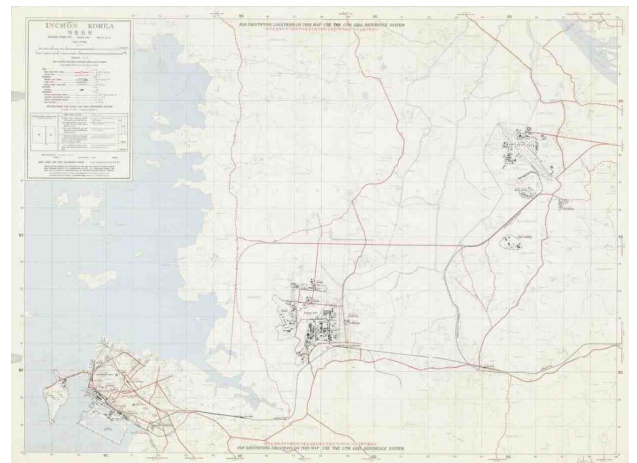
주요소장처 중 한국 전쟁 웹사이트는 텍사스대학의 지도 아카이브 사업의 일부이며, 다수의 한국관련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도 외에 제작, 주기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일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3. 지역연구에서의 활용 연구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미군 지형도를 전후자료를 바탕으로 특정지역에 지역연구에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활용이 가능하다.

3.1. 지역연구 - L852 인천

본 지도는 1950년대 중반의 인천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도는 부평역사박물관, 호주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두 자료모두 2판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1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지도에는 행정구역, 마을 정보와 철도, 도로와 미군기지, 수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인천항부터 캠프마켓일대, 김포공항 일대의 지리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소사역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되었던 철도 노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후 1963년 국립건설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도를 통해서 해당 노선이 ‘김포선’임을 확인할 수 있다.



L852 대한 인천지도(1950년대 중반 추정)

3.2 지역연구 - 속초

속초지역을 대상으로 지도들을 통해서 미군지도를 기준으로 전후의 지도들을 바탕으로 차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사한 비교를 위하여 축척은 1:50,000으로 한정하여서 비교하였다. 속초지역에 대한 최초의 미군지도는 1945년 L751시리즈이다. 도엽명은 ONGIN이며, 지도 우측 하단에 일본명칭인 OSHIN을 병행하여서 표기하였다. 지도 설명에는 1918년 웅진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다고 밝히

고 있다. 이전 시기 자료는 1913년 육지측량부에서 발간한 도엽명 오리진(五里津)과 1917년 육지측량부에서 발간한 도엽명 웅진(兪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1913년 오리진은 지도 북쪽에 오리진(五里津)이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로 1917년 웅진은 지도 중앙 하단에 대포리(웅진)으로 도엽명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순사주재소(巡査駐在所)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서 행정적인 중심지로 성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14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개편, 지명 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1966년 국립건설연구소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속초로 바뀌는데, 1963년 속초시 승격에 따른 것이다. 1957년 삼능공업사에서 발간한 지도에서는 다른 지도에서는 제공하지 않았던 동해북부선, 해저전선 등이 표기되었다. 비슷한 시기 제작된 속초지역에는 동해 수심 등이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속초 지도(1913~1966)

시기	도엽명	소장처	의미, 특징
1913 (대정2년)	오리진 (五里津)	국립중앙 박물관	육지측량부에서 발간한 최초의 지형도, 해안지역 수심 표기(등고선), 지명 및 행정변경(1914-) 이전 지리정보 제공
1918 (대정7년)	웅진 (兪津)	국립중앙 박물관	명칭변경 이후 발간된 지형도
1945	ONGJIN	텍사스대	L751시리즈로 미군이 발간한 최초의 지형도 지명은 한국, 일본 명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
1957	웅진 (兪津)	국토지리 정보원	민간(삼능공업사)에서 발간한 최초의 지형도, 해안지역 수심 표기(숫자), 동해북부선, 해저전선 등 표기
1966	속초	국토지리 정보원	정부에서 공식발간한 최초의 지형도, 도엽명 속초로 변경 (1963년 속초시 승격) 해안지역 수심 표기(숫자)

4. 결론

4.1 1950년대 미군 지도의 의미

본 연구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자료수집과정에서 미군 지형도의 의미,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장현황 및 의미를 살펴보았다. 미군 지형도는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 국립건설연구소가 공식적인 지도를 발간하기까지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지도가 제작된 1945년부터 1960년까지의 지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1950년대 6.25전쟁 시기 등에 미군이 군사적인 목적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도시나 1950년대 이후 지도들은 당시의 미군 기지와 한국의 철도, 인프라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또한, 1945년 이전의 일제강점기에 제작하였던

지형도와 이후 지도를 비교하여 지리적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성이 높다.

향후, 각 시리즈별로 인덱스 맵을 기초로 지속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시대별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4.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육군측지부대에서 발간한 지도들의 존재는 확인하였으나 군사지도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지도제작은 1950년대 국방부 지리연구소 창설 이후에 내부부의 국립건설연구소가 설립되는 1961년, 1966년 네덜란드와의 항공사진 측량협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제강점기의 지도들을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956년부터 삼능공업사(三能共業社)에서 발간된 지도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지명에 한국어를 기입하고 군의 검열도 받았으나 정부차원의 발간물은 아니었고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제작된 것이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국토지리정보원(2009)에 따르면 1958년 지도제작을 담당하는 최초의 정부기관으로 국방부 산하 지리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육군본부 산하 측지부대에서 지도제작을 하였다. 다만, 이 지도는 1950년대의 모습을 기록한 자료로 지역사 연구에서 다수 참고자료로 언급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도를 제공하고 있고,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등에도 소장되어 있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박물관 문서 <https://www.museum.go.kr/modern-history/map.do>
2.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kor/main.do>
3. 미의회도서관 <https://www.loc.gov>
4. 박선영(2021),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조선지형도(제2차지형도)의 특징」, 문화역사지리, 제33권 제2호, p13-34
5. 박선영(2018), 한국 근대지형도의 소장 현황과 활용,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6. 전국박물관소장품 홈페이지 <https://emuseum.go.kr/main>
7. 텍사스대학도서관 홈페이지 내 페리 케스타네다 도서관 지도 컬렉션 <https://maps.lib.utexas.edu/maps/korea.html>
8. 프린스턴대학도서관 <https://library.princeton.edu/>
9. 한국전쟁 <https://www.koreanwar.org/html/korean-war-topo-maps.html>
10. 국토지리정보원(2009),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11. 호주국립대학 도서관 내 한국지도 <https://openresearch-repository.anu.edu.au/handle/1885/188505>
12. 호주국립도서관 <https://trove.nla.gov.au/>